부처님 원음 가르침을 한 권에 담다

전재성 회장 〈통합판 앙굿따라니까야〉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앙굿따라니까야〉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 경전이다. 이를 한 권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 오른쪽〉은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8년 출간한 우리말 〈앙굿따라니까야〉를 한 권으로 엮은 〈통합개정판 앙굿따라니까야 전서〉〈사진 왼쪽〉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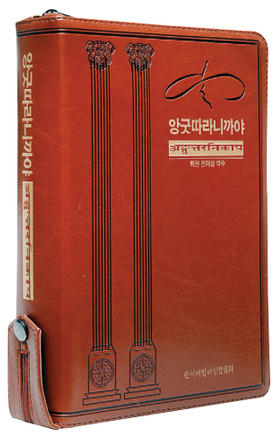
총 11권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종이를 사용해 부피를 줄였고, 가죽표지에 지퍼를 달아 휴대하기 편하게 했다. 이 같은 전서를 발간한 것은 〈쌍윳따라니까야〉에 이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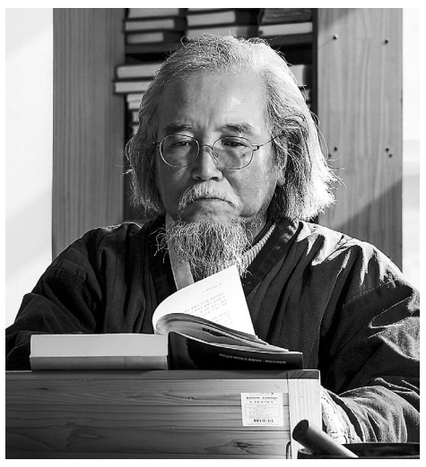
〈앙굿따라니까야〉는 4부 니까야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성립됐고 가장 경전 수도 많다. "한역(漢譯)에서는 〈증일아함경〉에 해당하지만 북전 〈잡아함경〉이나 〈중아함경〉과 일치하는 경전이 더 많아 〈증일아함경〉보다 훨씬 원형에 가까운 부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 회장의 설명이다.

〈앙굿따라니까야〉의 가장 큰 특징은 법수(法數)로 부처님 가르침을 분류해 편집한 점이다. 이는 〈쌍윳따니까야〉가 내용적 분류에 의한 편집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실제, 〈쌍윳따니까야〉가 철학적 이론과 수행의 주요한 구조를 명확히 표현해주는 짧은 경전들을 집대성했다면, 〈앙굿따라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심리적·윤리적인 면을 재가신도의 일상적인 관심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된 짧은 경전들로 이뤄졌다.

전 회장은 "〈앙굿따라니까야〉를 읽어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편집된 것이 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오히려 친근하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면서 "포교를 위한 교재로서 이용하기 가장 좋은 니까야"라고 강조했다.





'쌍윳따라니까야' 이어 두 번째
초판본 윤문·오역 수정해 엮어
3771개 경·4546개 주석들 담아
색인 통해 쉽게 경전 찾기 가능
"니까야, 법문 오케스트라 같아"

전 회장이 새로 선보인 〈앙굿따라니까야 전서〉는 이전에 발간한 초판본 상당 부분을 윤문했고, 오역들도 바로잡았다. 책 분량도 2780여 페이지로 방대하다. 이 안에는 부처님 원음을 담은 3771개의 경과 스님·연구자·신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 4546개가 담겨있다.

번역은 빠알리성전협회(PTS)의 교열원전과 미얀마6차결집본(인터넷판본)을 비교해 생략된 부분을 모두 복원·번역했으며, 적지 않는 '제목조차 없는 경'의 경우 각각의 경 명칭을 부여하면서 번역했다.

이번 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색인'이다. 대표적 예가 '비유 색인'이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며 말씀한 다양한 비유를 경전 내에서 단숨에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서는 부처님의 설한 비유들을 분류하고 경전을 색인해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처님 생애, 윤회, 대인관계 등 주제별 분류 색인, 다른 경전과의 비교·연결 색인 등도 독자들의 수행과 공부를 용이하게 한다.

전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모를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쌍윳따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를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니까야는 편집 시기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짧은 경전으로 구성돼 승원적인 전문 수행자의 삶을 대변하는 〈맛지마니까야〉나 〈디가니까야〉에 비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재로 잘 지어진 집과 같고, 아주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고 예찬했다.

1977년 민중불교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전 회장은 이후에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인도학 및 티베트학을 전공했다. 한국에 돌아온 1989년 현재까지 30여 년간 빠알리어 경전을 번역해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초기 경전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그의 공이 크다. 그는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는 물론 〈율장 대품〉 〈율장 소품〉 〈율장 비구계〉 〈율장 비구니계〉 〈테라가타-장로게〉 〈테리가타-장로니게〉 〈우다나〉 등을 모두 번역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청정도론〉을 번역 중이며, 9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國博, 일제시기 입수 석탑 조사 완료

흥법국사탑비 등 21점…고려 승탑 상륜부 부재 확인

국립박물관에 수장된 석조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및 자료조사(2010~2020년)'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사·수집한 보물 제359호 정토사 홍법국사탑비 등 석조문화재 21점을 조사·완료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국보 제102호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국보 제104호 전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보물 제190호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보물 제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등 4기의 고려시대 승탑 상륜부 부재와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함께 입수한 석사자 4구(軀)가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유리건판 자료, 소장품 입수대장 등을 확인하고, 승탑 상륜부 부재 등은 실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시 중인 승탑과 3D 스캔 실측 및 암질분석도 실시해 비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물 제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상륜부재.

국립중앙박물관은 "확인된 승탑 상륜부 부재들은 7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석사자 4구는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金石文으로 6세기 신라를 엿보다

경주문화재硏, 19~20일 '신라 금석문' 학술대회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신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하일식) 공동으로 오는 6월 19~20일 경주 드림센터에서 '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6세기 금석문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신라 왕경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원로부터 젊은 학자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다.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양일간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 발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은 기조 강연인 '6세기 새로운 금석문의 출현이 신라사 연구에 끼친 영향(주보돈, 경북대)'을 시작으로, △'4~6세기 포항과 울진 지역의 고고학적인 환경(이인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하일식,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둘째 날은 '비문으로 본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주제로 중견학자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6세기 초 신라 3비의 서사구조와 6부인의 천손의식(天孫意識)(여호규, 한국외대)'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그에 따른 지방민에 대한 인식 변화(윤진석, 계명대)'를 살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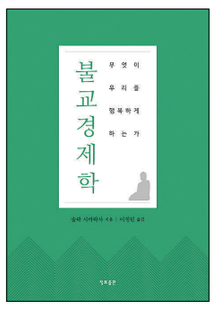
또한, 신라의 율령과 노동력 체계를 살펴본 '문자자료를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역역동원체계(강나리, 고려대)'와 발견 30주년을 맞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국보 제242호)에 나타난 행정 단위, 직책 이름과 당시 지방행정 체계를 알아보는 '6세기 봉평비의 노인촌과 촌사인(최경선, 연세)'의 발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신성민 기자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주목! 학술서

술락 사비락사의 〈불교경제학〉



세계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파괴와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은 배제됐다. 경제와 기술, 발전이라는 명제들만 존재한다. 그럼 오롯이 인간을 위한, 생명을 위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가인 술락 시바락사는 저서 〈불교경제학〉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

'불교경제학'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 E.F. 슈마허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 불교경제학에 대해 슈마허는 "불교경제학의 핵심은 단순성과 비폭력"이라며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식 생활방식의 경이로움은 그 완전한 합리성에 있다. 지극히 적은 투자로 엄청나게 만족스런 결과를 끌어낸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시바락사는 세계 경제시스템을 지적해 낸다. 그는 현 세계가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에 취해 있고, '소비주의'라는 종교에 빠져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더 벌려 애쓰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소비를 자극하는 현재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끝이 공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돈의 흐름과 숫자 싸움에 빠진 경제학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경제학, 생명을 살리는 경제학,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제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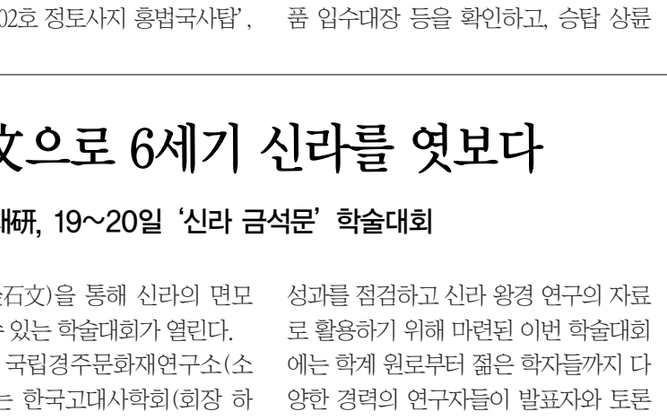
불교경제학은 삶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나의 깨달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개선이 개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연기적이고 순환적인 발전을 시바락사는 이야기한다.

자칫 문제제기만 잔뜩 늘어놓거나 비판에 그칠 수 있는 주제들이 단숨에 자신의 실천과제로 전환되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성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 법고·
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